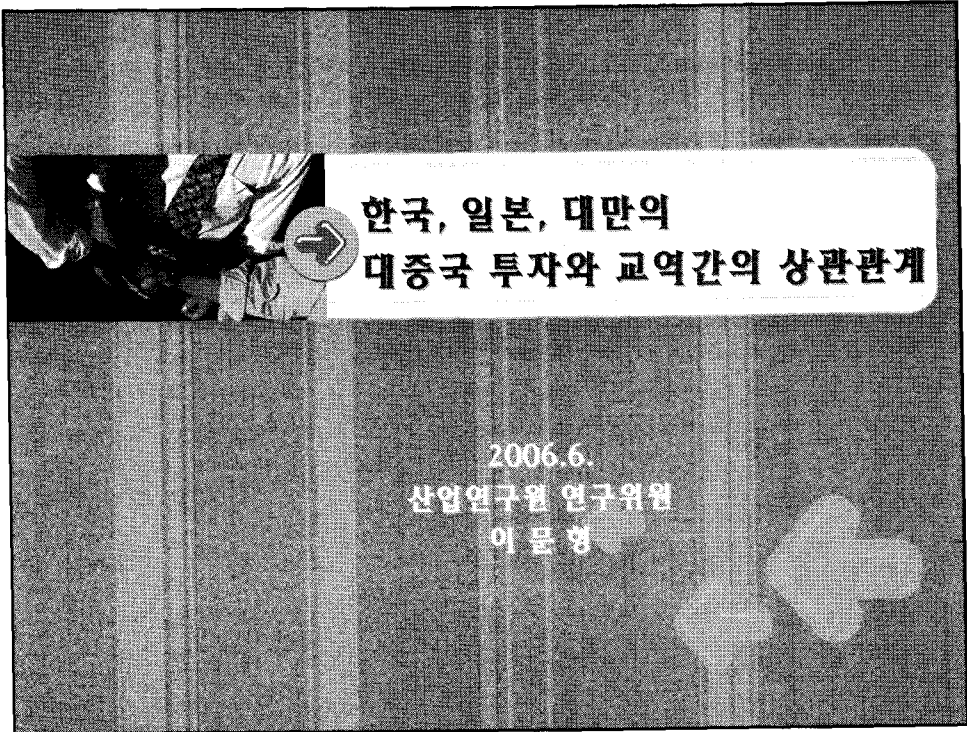


“한국 · 일본 · 대만의 대중국투자과 교역간의 상관관계

이 문 형
(산업연구원)

목 차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3
II. 한국 · 일본 · 대만의 대중국 투자	34
III. 중국의 대한민국 · 일본 · 대만 교역	37
IV. 중국의 대한민국 · 일본 · 대만 산업내 분업추이	43
V. 투자와 교역, 산업내 분업지수간의 상관관계	46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와 교역간의 상관관계

2006.6.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 문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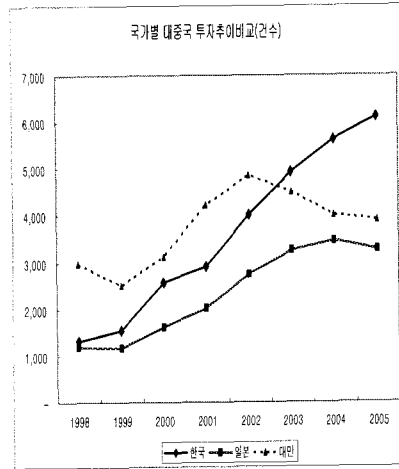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증가
 - 특히 최근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제3국에서 중국에 의한 시장침식 현상도 심화
 - 최근 대중국 투자를 장려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대두
- ❖ 향후 한중 관계의 발전방향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 교역, 산업내 분업관계가 주요 산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특성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와 발전 단계가 유사하고 중국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협력을 동일한 잣대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 다국적기업이 아닌 개도국의 투자가 교역 및 산업내 분업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며, 사례연구도 부족한 상태
 -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무역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자본이동론, 조업국제화론, 제품수명주기설, 글로벌전략론 등); 이종구(1995, KDI) 등
 - 한중간의 투자와 무역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실적들도 많은 편이며, 한중일 3국간의 투자와 무역에 대한 연구는 이장수(2002, KIEP)박사가 투자와 무역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연구
 - 본 연구는 투자와 교역, 산업내 분업지수간의 관계가 상호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특성을 조망해보고자 함.

2.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

(1)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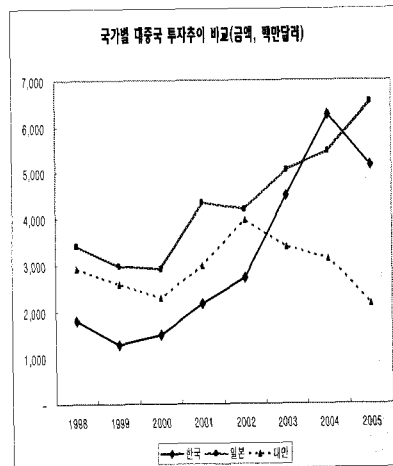
- ▶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말 누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건수 552,942건중 한국은 38,868건으로 전체의 7%, 일본은 35,124건으로 6.4%, 대만은 68,095건으로 12.3%를 차지
- ▶ 이들 3개 국가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중국이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 38%보다는 낮으나 수출 비중 18%보다는 높은 편
- ▶ 90년대까지 선두를 달리던 대만이 중국 WTO가입을 계기로 둔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투자건수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
- ▶ 일본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시 약간 소강상태를 나타냈으나 중국 WTO 가입을 계기로 증가세, 단 투자건수는 일본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과 대만에 비해 크게 미흡한 편



2.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

(2) 금액 기준

- ◆ 2005년말 누계기준, 대중국 국가별 금액투자규모에서는 일본이 533.8억달러로 홍콩에 이어 2위(비중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이 417.6억달러(6.7%)로 5위, 한국이 311억달러(5.0%)로 6위를 차지
- ▶ 일본, 한국과 대만 모두 교역규모에 비해서는 투자가 미진한 편
- ▶ 건당 투자규모는 일본이 151만달러로 중국 전체 평균치인 119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대만은 80만달러와 61만달러를 기록해 투자 규모가 영세한 편
- ◆ 일본은 투자금액이 계속 상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04년을, 대만은 2002년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양상



2.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

(3) 투자 통계 오차

- ❖ 일본, 한국, 대만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통계(Outward)와 중국 상무부의 통계(Inward)간 상당한 격차를 시현
- ❖ 각국의 해외투자 관련 통계 집계방식이 상이
- 한국측과 중국측간의 통계오차는 건수가 2.75배, 금액이 2.18배로 중국측이 많음
- 일본측 통계는 건수는 2.44배로 한국측 오차와 비슷하나 금액은 0.54배로 한국과 상반된 결과(신고기준)
- 대만과 중국측 통계 오차는 건수는 1.98배, 금액은 0.88배로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시현
- ❖ 투자통계 오차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
-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한국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
- 건수가 모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중국에서 외국인투자에 우대조항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

(단위: 건,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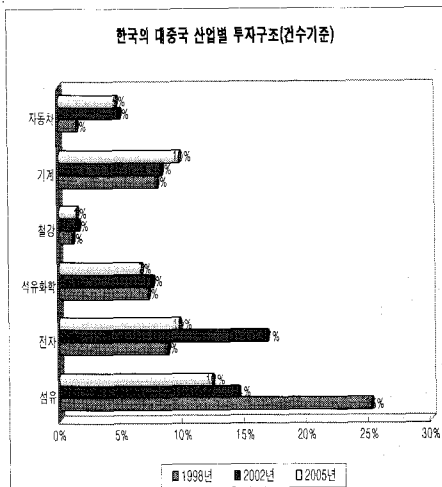
		자국통계(A)	중국통계(B)	B/A
한국	건수	14,152	38,868	2.75
	금액	14,277	31,103	2.18
일본	건수	14,374	35,124	2.44
	금액	99,800	53,376	0.54
대만	건수	34,452	68,095	1.98
	금액	47,256	41,757	0.88

1) 한국, 중국, 대만은 2005년말 누계기준, 일본은 2005년 3월말 누계기준
 2) 한국은 수출입은행(투자 기준), 일본은 경제산업성(신고), 대만은 경제부(허가), 중국은 상무부(건수 허가, 금액 도착) 통계를 인용

2.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

(4)-1) 산업별 투자구조: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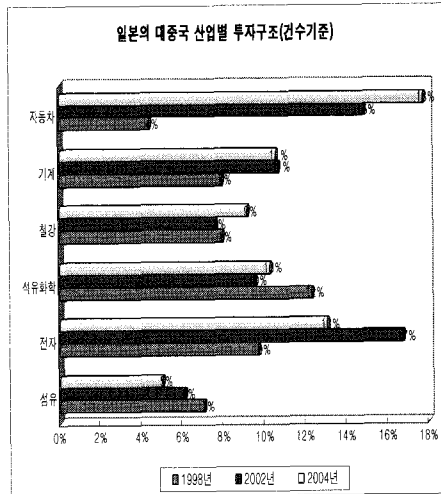
- ❖ 섬유, 전자, 석유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등 6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구조를 조망
- 이들 6개 산업이 한국의 대중국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51.7%, '02년 53.6%, '05년 44.4%로 최근들어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금액기준으로 '98년 79.1%, '02년 71.6%, '05년 62.2%)
- ❖ 업종별로는 섬유와 전자, 기계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 섬유(1998년 25.1%→2005년 12.3%), 석유화학의 투자 비중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기계와 자동차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 투자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양상을 시현
- 전자는 2002년을 정점으로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2.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

(4)-2) 산업별 투자구조: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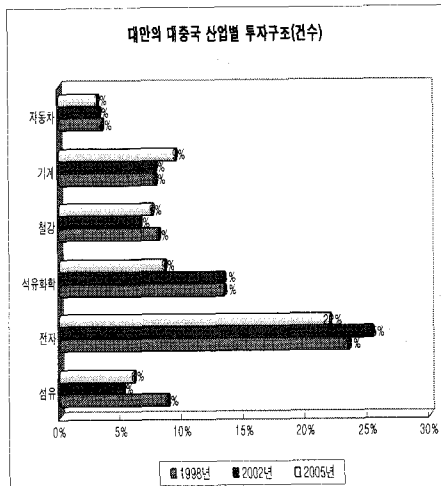
- ❖ 6개 주력산업이 일본의 대중국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9.1%, 2002년 65.4%, 2004년 65.7%로 한국과 상반되게 최근 들어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금액기준으로는 '98년 54.7%, '02년 56.3%, '04년 73.6%)
- ❖ 업종별로는 자동차(18%), 전자(13%), 기계(11%), 석유화학(10%)로 자동차와 석유화학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한국과 같이 섬유, 석유화학의 투자 비중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철강, 기계와 자동차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 투자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양상을 시현
- 전자는 2000년(31.1%)을 정점으로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2.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

(4)-3) 산업별 투자구조: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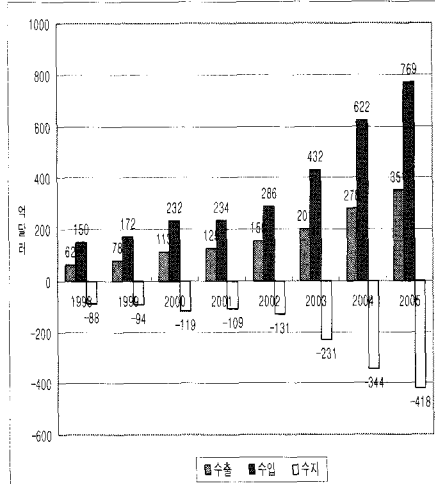
- ❖ 6개 주력산업이 대만의 대중국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5%, 2002년 61.5%, 2005년 56.7%로 한국과 비슷하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금액기준으로는 '98년 76%, '02년 74.4%, '05년 72.2%)
- ❖ 업종별로는 전자(22%)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며, 기계(10%), 석유화학(9%)이 다음
- ❖ 자동차와 섬유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업종별 비중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난 8년간 큰 변화가 없는 편이며, 섬유와 석유화학이 한국과 같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기계 비중이 증가세를 시현
- 전자는 2000년(40.8%)을 정점으로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1)-1) 교역주어: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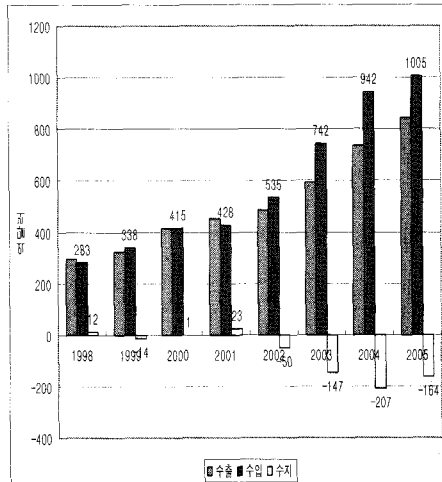
- ❖ 본 논문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와 교역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중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
- ❖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은 '98년 62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351억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8.1%의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3.4%에서 '05년 4.6%로 증가
-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98년 150억달러에서 '05년 769억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6.3%의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0.7%에서 '05년 11.6%로 증가
- ❖ 무역수지는 '98년 88억달러 적자에서 '05년 418억달러로 확대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1)-2) 교역주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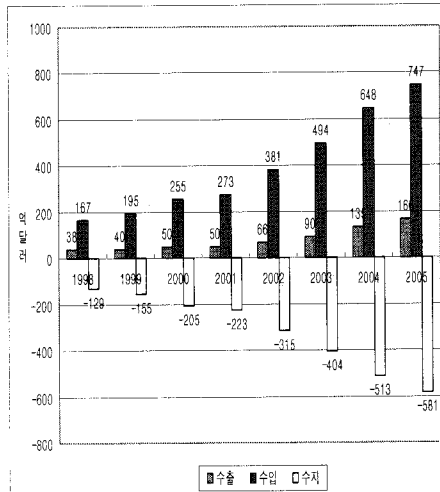
- ❖ 중국의 대일본 수출은 '98년 283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841억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16.1%의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6.3%에서 '05년 11%로 5.3%포인트 감소
- ❖ 중국의 대일본 수입은 98년 283억달러에서 '05년 1,005억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19.3%의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20.2%에서 '05년 15.2%로 5%p 감소
- ❖ 무역수지는 '01년까지는 흑자와 적자를 번전하다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일본 기계류와 소재부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적자구조가 정착
- 적자규모가 '02년 50억달러에서 '05년 150억달러로 확대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1)-3) 교역주아: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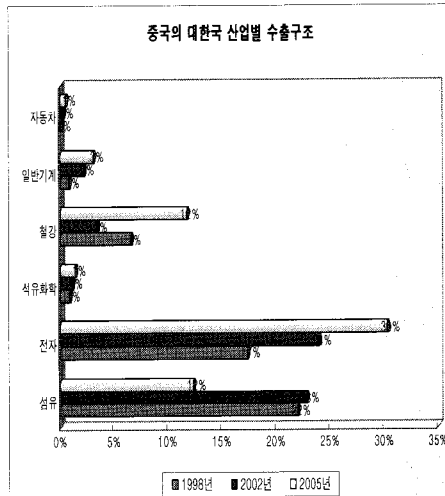
- ❖ 중국의 대대만 수출은 '98년 38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166억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3.4%의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2.1%에서 '05년 2.2%로 거의 비슷
- ❖ 중국의 대대만 수입은 98년 167억달러에서 '05년 747억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3.9%의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1.9%에서 '05년 11.3%로 약간 감소
- ❖ 무역수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적자를 시현, 대만은 한국과 함께 중국의 최대 수출용 원부자재 기지
- 적자규모가 '98년 120억달러에서 '05년 581억달러로 확대
- 적자규모가 한국보다 163억달러가 많은 편이며 이는 중국이 통일전략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대만으로부터 수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2)-1) 산업별 수출구조: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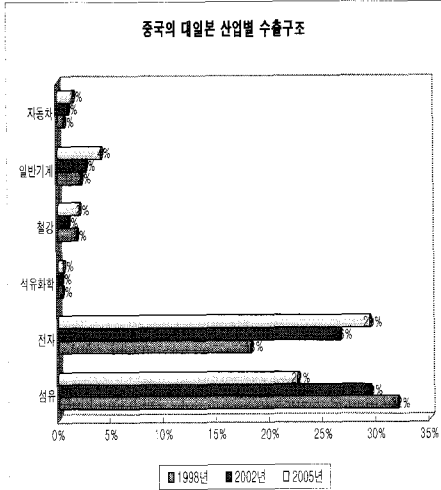
- ❖ 6개 주력 산업이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7.5%에서 2005년에는 59.3%로 크게 증가
- 이는 중국의 대한 수출이 특정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
- ❖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은 섬유와 전자에 집중
- 섬유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22%에서 '05년에는 12%로 무려 10%p가 감소
- 반면, 전자는 '98년 17%에서 '05년 30%로 증가하여 13%p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한 국 수출의 주도적 업종으로 변신
-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전자 수출이 중국 전자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되면서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양상
- 특히 중국 철강수출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해 한국은 중국 철강수출에서 중요한 국가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2)-2) 산업별 수출구조: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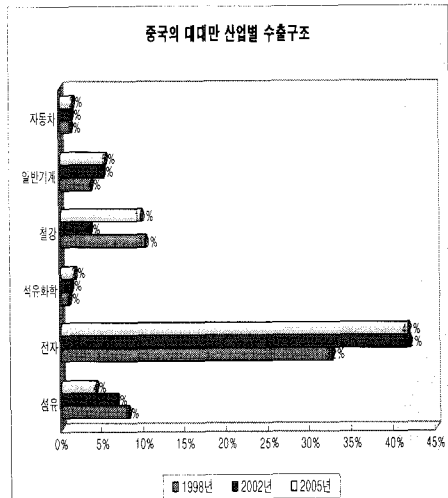
- ❖ 6개 주력 산업이 중국의 대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55.1%에서 2005년에는 60%로 증가
- 이는 중국의 대일본 수출 역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
- ❖ 중국의 대일본 수출 역시 한국과 같이 섬유와 전자에 집중
- 섬유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32%에서 '05년에는 22%로 무려 10%p가 감소
- 반면, 전자는 '98년 18%에서 '05년 29%로 증가하여 11%p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일본 수출의 주도적 업종으로 변신
- 일반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양상
- 특히 중국 자동차와 기계수출에서 대일 자동차, 기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1%, 9%에 달해 일본 투자기업을 매개로 양국간 자동차와 기계산업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2)-3) 산업별 수출구조: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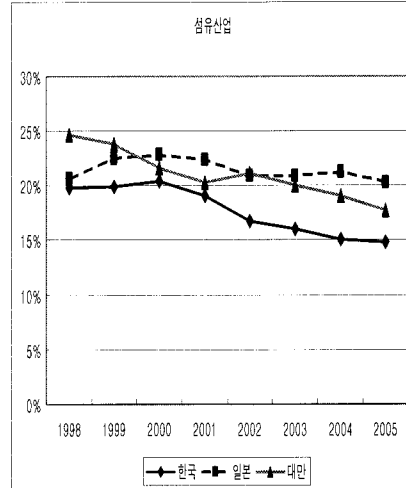
- ❖ 6개 주력 산업이 중국의 대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57%에서 2005년에는 64%로 증가
- 이는 중국의 대대만 수출 역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
- ❖ 중국의 대대만 수출은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전자에 완전 집중, 대신 섬유는 매우 낮은 비중('05년 4.1%)
- 전자는 '98년 33%에서 '05년 42%로 증가하여 9%p가 증가
- 철강은 '98년 10%에서 '02년에는 3.6%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05년에는 9.6%로 높아짐. 대만 철강수출이 중국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일본과는 비슷한 비중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1/2정도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3)-1) 섬유산업 중국 수입시장 점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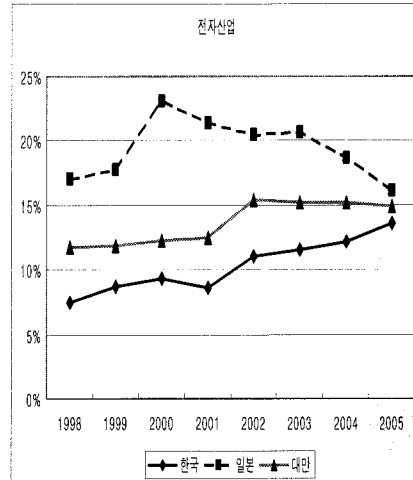
- ❖ 중국 섬유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살펴보면 3개국 모두 하향하는 추세
- ❖ '98년에는 대만, 일본, 한국 순이었으나 '05년에는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일본이 대만에 비해 강세를 시현
-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19.8%에서 '05년 14.8%로 5%p가 감소
- 일본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20.6%에서 '05년 20.3%로 거의 변동이 없음
- 대만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24.6%에서 '05년 17.7%로 6.9%p가 감소하여 3개국 중 감소폭이 가장 큼
- 이들 3개국의 점유율은 '98년 65%에서 '05년 52.8%로 12.2%p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들 3개국의 섬유산업에서의 비교우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3)-2) 전자산업 중국 수입시장 점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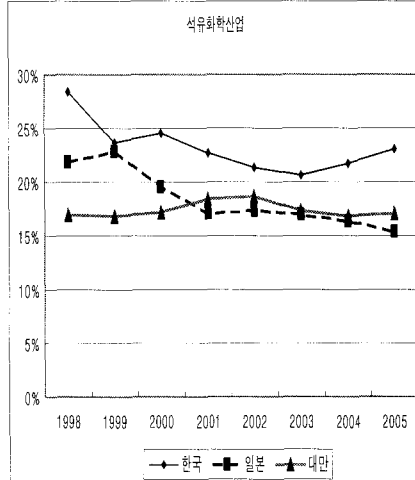
- ❖ 중국 전자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간 경쟁관계가 갈수록 치열
- ❖ '98년에는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05년에는 3개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근접
-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7.5%에서 '05년 13.6%로 6.1%p가 증가
- 반면, 일본은 '98년 17%에서 '05년 16.1%로 0.9%p 감소
- 대만은 '98년 11.7%에서 '05년 14.9%로 3.2%p가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한국보다는 소폭
- 이들 3개국의 점유율은 '98년 36.2%에서 '05년 44.6%로 8.4%p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자산업에서의 동아시아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3)-3) 석유화학산업 중국 수입시장 점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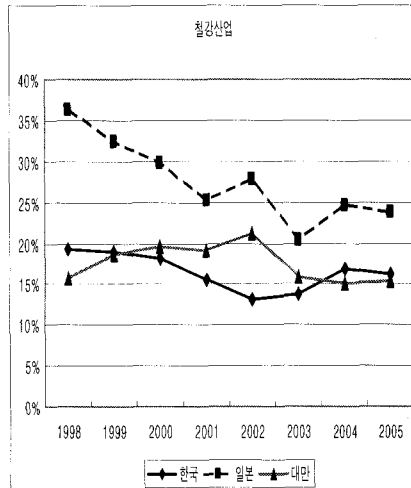
- ❖ 중국 석유화학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대만이 경쟁중
-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28.4%에서 '05년 23.0%로 5.4%p가 감소
- 일본 역시 '98년 21.9%에서 '05년 15.4%로 6.5%p 감소
- 대만은 '98년 17.0%에서 '05년 17.1%로 0.1%p가 증가
- 이들 3개국의 점유율은 '98년 67.3%에서 '05년 55.5%로 11.8%p가 감소하였으며, 감소분에 대한 대체 국가는 중동국가들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3)-4) 철강산업 중국 수입시장 점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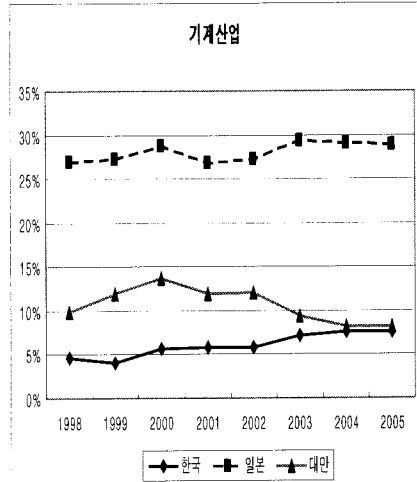
- ❖ 중국 철강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경쟁중
-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19.3%에서 '05년 16.2%로 3.1%p가 감소
- 일본 역시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점유율이 '98년 36.3%에서 '05년 23.8%로 12.5%p 감소
- 대만은 '98년 15.7%에서 '05년 15.4%로 현상유지 상태
- 이들 3개국의 점유율은 '98년 71.3%에서 '05년 55.4%로 15.9%p가 감소, 중국 철강산업에서 수입선 다변화가 진행(중가국가들)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3)-5) 기계산업 중국 수입시장 점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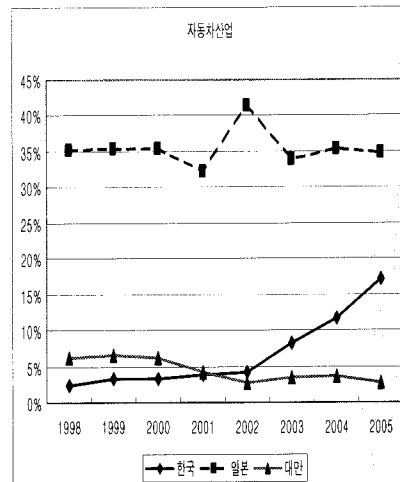
- ❖ 중국 기계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만을 추격
-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4.6%에서 '05년 7.6%로 3%p가 증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증가도 원인
- 일본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98년 27%에서 '05년 28.9%로 1.9%p 증가
- 대만은 '98년 9.8%에서 '05년 8.1%로 1.7%p 감소, 대만의 대중국 투자 증가도 원인중의 하나
- 이들 3개국의 점유율은 '98년 41.4%에서 '05년 44.6%로 3.2%p가 증가,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설비용 기계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



3.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역

(3)-6) 자동차산업 중국 수입시장 점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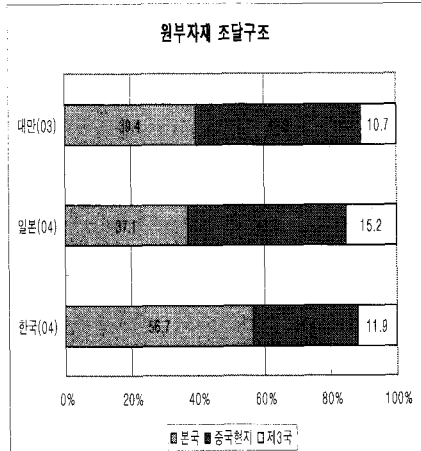
- ❖ 중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빠른 성장세를 시현
-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98년 2.5%에서 '05년 17.1%로 14.6%p가 증가, 한국 현대, 기아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였기 때문
- 일본은 점유율이 '98년 35.2%에서 '05년 34.7%로 거의 현상유지
- 대만은 '98년 6.1%에서 '05년 2.8%로 3.3%p 감소, 완성차 진출없이 부품 단독 진출로는 한계가 있음을 노정
- 이들 3개국의 점유율은 '98년 43.8%에서 '05년 54.6%로 10.8%p가 증가, 자동차산업이 전자, 기계와 더불어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산업으로 등장



4. 중국의 대한국, 일본, 대만 산업내 분업 추이

(1)-1)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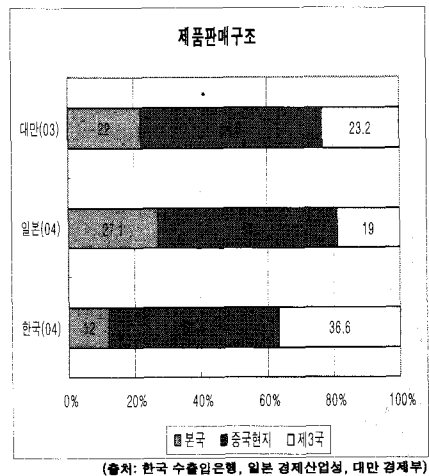
- ❖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업체들의 원부자재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이 모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반면, 대만은 현지 조달 비율이 높은 편
- 3개국 모두 현지 조사 표본 수가 적고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많은 편으로 분석근거로 삼기에는 한계(한국 444개 업체, 대만 392개 업체)
- 3개국 모두 본국 아니면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는 10% 내외, 일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15%)
- 투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본국에서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대신 중국 현지에서의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이들 투자기업들이 본국과 중국간의 산업내 분업을 주도, 대체로 수직적 분업체계를 형성



4. 중국의 대한국, 일본, 대만 산업내 분업 추이

(1)-2) 투자기업의 제품판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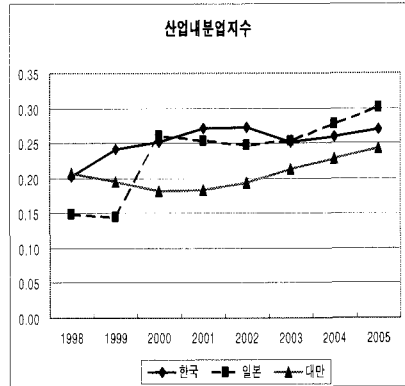
- ❖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업체들의 제품판매 구조를 살펴보면 3국 모두 현지 판매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상회
- 상대적으로 한국은 제3국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본과 대만은 본국으로의 역수입 비중이 높은 편
-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 현지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대신 제3국 수출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중국 WTO 가입 이후 한국, 일본, 대만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목적이 생산비용 절감형에서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중
- 원부자재 조달, 완성품의 역수입을 통해 이들 투자기업들은 본국과 중국간의 산업내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



4. 중국의 대한국, 일본, 대만 산업내 분업 추이

(2)-1) 전체 추세

- ❖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들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모국과 투자국간 산업내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현
- 3개국 모두 산업내 분업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시현
- 한국과 중국간 산업내 분업지수는 '98년 0.20에서 '05년 0.27로 0.07%p가 증가, 아직은 양국간 관계가 산업내보다는 산업간 분업이, 수평적보다는 수직적 분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산업내 분업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은 확실한 현상
- 일본과 중국간 산업내 분업지수는 '98년 0.15에서 '05년 0.3으로 무려 두배가 증가하여 양국간 분업관계가 매우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
- 대만은 '98년 0.21에서 '05년 0.24로 한국과 유사한 단계이나 분업발전 속도가 한국보다는 낮은 편



(Harry G. Grubel and Lloyd, P.J.(1975))

※ 산업내분업지수 산출 공식

$$\sum_{i=1}^{9999} \left[\left(1 - \left| \frac{E_i - I_i}{E_i + I_i} \right| \right) \times \left(\frac{E_i + I_i}{E + I} \right)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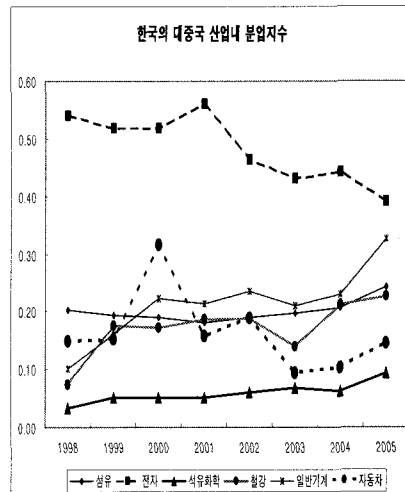
E_i : HS code i 의 수출액, I_i : HS code i 의 수입액

E : 총수출액, I : 총수입액

4. 중국의 대한국, 일본, 대만 산업내 분업 추이

(2)-2) 한국의 산업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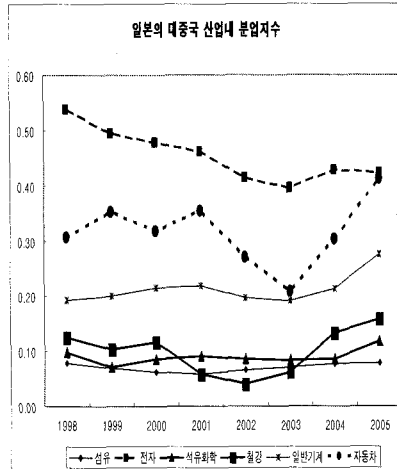
- ❖ 한국과 중국간에는 전자('05년 0.39)와 일반기계('05년 0.33)의 산업내 분업지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
- ❖ 전자산업의 산업내 분업지수는 '98년 0.54에서 '01년 0.56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를 시현,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자동차는 한국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는 관계로 양국간 산업내 분업지수는 낮은 편이나 2002년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을 계기로 분업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철강산업 역시 '98년 0.07에서 '05년 0.23으로 지수가 크게 증가, 이는 중국의 긴축정책 여파로 철강이 공급과잉에 처하면서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
- 일반기계 역시 '98년 0.10에서 '05년 0.33으로 크게 증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관계없이 중국제품의 저렴한 가격때문에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한국과 중국간 수평적 분업관계가 형성중에 있다고 보아짐.



4.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산업내 분업 추이

(2)-3) 일본의 산업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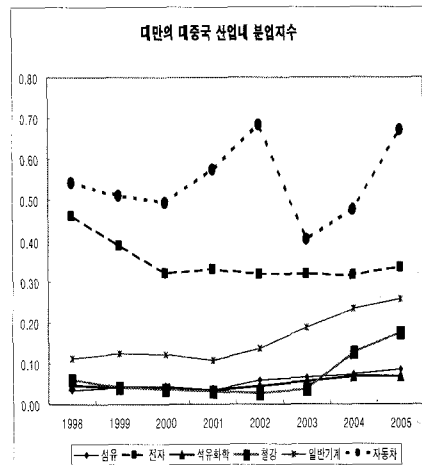
- ❖ 일본과 중국간에는 전자('05년 0.42)와 자동차('05년 0.41)의 산업내 분업지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
- ❖ 전자산업의 산업내 분업지수는 '98년 0.54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시현,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수출용 부품)
- 자동차는 토요타와 혼다 등 완성기업체와 함께 부품업체들도 중국에 대거 진출하면서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양국간 산업내 분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형성중
- 일반기계 역시 '98년 0.19에서 '05년 0.28로 크게 증가, 일본 투자업체들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4.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산업내 분업 추이

(2)-4) 대만의 산업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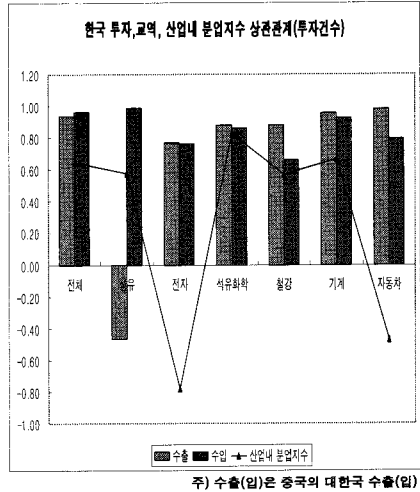
- ❖ 대만과 중국간에는 자동차('05년 0.67)와 전자('05년 0.34)의 산업내 분업지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
- ❖ 자동차산업의 산업내 분업지수는 '02년 0.60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대만 수출(1.6%), 수입(0.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는 낮다고 사료
- 전자는 자동차와 달리 대만의 대중국 주력 교역품목으로 산업내 분업지수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 한국, 일본과 같이 산업내 분업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늘어났기 때문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반기계계의 지수가 '98년 0.11에서 '05년 0.26으로 크게 증가, 이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기계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5. 투자와 교역, 산업내 분업지수간의 상관관계

(1) 한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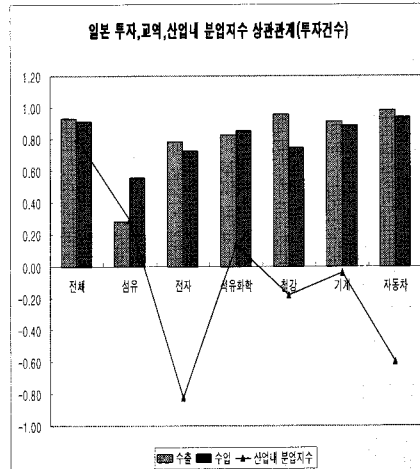
- ❖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수출, 수입, 산업내 분업지수간의 '98년~'05년간 상관관계를 분석
- ❖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수출, 수입, 산업내 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기가 곤란, 단순하게 상관관계만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을 도모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시현
- 투자건수와 수출간에는 0.94, 수입간에는 0.96의 높은 지수를 시현, 즉 투자가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국 교역도 증가한다는 의미, 단 산업내 분업지수와의 상관관계는 0.65로 수출입에 비해 낮은 지수를 산출
- 업종별 수출에서는 기계와 자동차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섬유는 낮은 상관관계를 시현
- 업종별 수입에서는 섬유, 기계가 높은 수치를 기록해 대중국 투자가 한국으로의 역수입을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
- 산업내 분업에서는 석유화학이 비교적 높은 지수를 시현



5. 투자와 교역, 산업내 분업지수간의 상관관계

(2) 일본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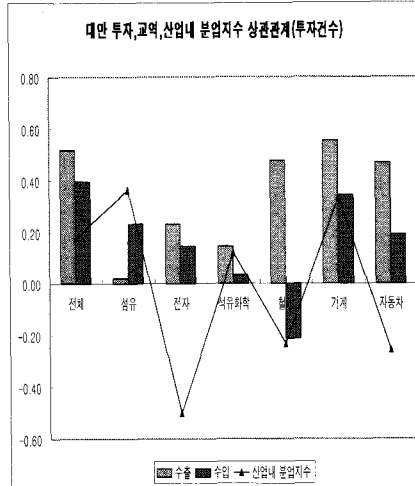
- ❖ 일본 역시 대중국 투자가 양국간 교역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시현
- 투자건수와 수출간에는 0.93, 수입간에는 0.91의 높은 지수를 시현(한국과 유사), 그러나 산업내 분업지수와의 상관관계는 0.80으로 수출입에 비해 낮으나 한국보다는 높은 지수를 시현
- 업종별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기계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섬유는 낮은 상관관계를 시현하여 한국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
- 업종별 수입에서는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이 높은 수치를 기록해 한국과 다른 모습을 시현
- 산업내 분업에서는 한국과 달리 마이너스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이 많음. 전자(-0.83), 자동차(-0.60) 등
-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진출, 투자 이후 본국기업과 중국 현지기업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본국 기업과 현지기업간 상생체제를 구축



5. 투자와 교역, 산업내 분업지수간의 상관관계

(3) 대만의 사례

- ❖ 대만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투자와 교역, 산업내 분업지수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 투자건수와 수출간에는 0.52, 수입간에는 0.40의 비교적 낮은 지수를 시현, 산업내 분업지수 역시 0.18로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수출에서는 기계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섬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수입에서는 대체로 모든 업종들이 낮은 수치를 기록해 한국이나 일본과 크게 다른 모습을 시현
- 산업내 분업에서는 한국과 달리 마이너스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이 많음. 전자, 자동차, 철강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
- ❖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대만의 투자가 최근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
- 한편 중소기업들은 일단 중국에 생산거점을 이전하면 기업의 부리가 이식하는 것과 같이 본국 기업과 중국 현지기업간의 연결고리가 취약해지기 때문
- 중국과 대만간의 분단국으로 언어가 같기 때문에 일단 대만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 빠른 속도로 중국 현지화를 달성
- 대만정부도 대중국 투자와 교역에 많은 제한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통계상 많은 오차가 존재할 수도 있음.
- ◆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기업들은 기술력이 취약한 관계로 더 이상 중국에 진출하기가 곤란



5. 투자와 교역, 산업내 분업지수간의 상관관계

(4) 맺음말

- ❖ 한국의 경우, 대중국 투자와 수출입은 강한 상관관계를 시현
- 섬유와 전자산업에서는 양국간 산업내 분업관계가 형성 중
- 소재산업은 특성상 투자와 대중국 수출 관계가 취약
-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생산비용 절감영역에서 내수시장 진출영역으로 전환
- ❖ 본 연구, 특히 일본과 대만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 중국시장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 본국 기업과 현지 기업간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리가 뽑히지 않도록 노력(생산공동화에 주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진출을 통해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

	투자 비중(%)	중국수입점유율(%)	산업내 분업지수
전체	7	11.6	0.27
섬유	17.5	14.8	0.24
전자	11.9	13.6	0.39
석유화학	8.1	23.0	0.09
철강	2.1	16.2	0.23
기계	9.7	7.6	0.33
자동차	4.5	17.1	0.14

- 1) 투자비중 중 전체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개별 산업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 2) 중국 수입점유율은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이 각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 사 합 니 다.

**중국경제모니터링 시스템
www.china.go.kr**

**산업연구원 이 문 형
mhlee@kiet.re.kr**